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가슴 노출의 의미 연구

남 후 남[†] · 금 기 숙*

극동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Breast Exposure in Women's Fashion Design

Hoo-Nam Nam[†] and Key-Sook Geum*

Dept. of Fashion Design, Keukdong College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2005. 2. 4. 접수 : 2005. 3. 19. 채택)

Abstract

Our interest in human body is more and more increasing. Not only academic and art communities but also other social communities show a keen interest in the human body. Especially, the breast of women's body parts may be comparable to men's penis because it is protruded. The breast which sexually distinguishes women from men becomes an important topic in the fashion design community. Therefore, such designs which emphasize the breast are being introduced in a natural wa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reason and symbolism for the exposure of breast and analyzing the fashion design that breast is exposed. This study will help us grasp the meaning which the design has. The exposure's scope of breast in the design includes the partial exposure, total exposure and the concealment of breast. But these all have their effects in each scope. For this paper, some general things were investigated. They are as follows: the phases of breast exposure in the fashion design, the exposure of breast expressed in the works of fine art, and the alteration of breast-exposing phenomenon shown in apparels. Then, each type of breast-exposing design shown in the women's fashion was analyzed from the middle of 1980s' when the phenomenon of breast exposure occurred to the year 2004. These could be divided into 4 types. They include a suggestive type, an exaggerative type, an open type and a reproductive type.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4 types, such meanings of design as an emphasis of femininity, an expression of liberty, a symbol of maternity and a commercialization of sex could be analogized.

Key words: emphasis of femininity(여성성 강조), exaggerative(과장), expression of liberty(자유의 표현), suggestive(암시).

I. 서 론

1990년대에 들어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자 여성적인 신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인 스타일

이 이상적인 신체미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관능적인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여성의 상징인 가슴이 자연스럽게 주목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슴은 단지 신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성애적인 느낌이 크기 때

[†] 교신저자 E-mail : hoonn@kdc.ac.kr

문에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그동안 숨겨져 왔다. 따라서 은밀하고 섬세한 가슴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와 여성의 가슴의 상징성을 살피고, 패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가슴이 노출된 디자인들을 분석하여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디자인 전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신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가슴에 대한 패션 디자인 측면의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먼저 일반적 고찰로서 패션 디자인에서의 가슴의 위상과 미술작품에서 표현된 가슴 노출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복식에 나타난 가슴이 노출된 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 폴 고티에가 원추형의 1!래지어로 된 디자인을 1980년대 중반에 발표한 이후 조심스럽게 가슴에 포인트를 두는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브 생 로랑이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디자인을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후부터 가슴 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가슴 노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 여성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가슴이 노출되는 디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각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노출된 가슴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디자인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유방은 본 연구에서는 가슴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연구범위는 패션 디자인에서 가슴부분이 디자인의 중점이 되고 그 가운데서 가슴이 노출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가슴의 일부분이 드러나거나 완전히 노출된 것과 가리고 있으나 노출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가슴 노출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인체 및 사회학 서적과 미술서적, 논문 등을 위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패션 전문 서적, 디자이너 작품집, 컬렉션지에 수록되거나 발표된 가슴 노출에 관한 사진 자료 및 내용을 유형분석에 활용하였다.

II. 일반적 고찰

1. 가슴의 위상과 의미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어머

니의 젖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사실 농물의 젖을 저온 살균 처리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던 19세기말까지만 해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다¹⁾. 여자의 가슴을 해부한 결과 그 대부분이 지방 조직이며, 모유 생산과 관련이 있는 샘 조직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 조직 때문에 둥그런 모양을 유지하는 여자의 가슴은 모유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자의 가슴이 반구 모양인 것은 양육의 기능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대신 성적 신호와 더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반구 모양으로 이루어진 여자의 가슴이 왜 성적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는지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인간 외 영장류의 암컷은 네 다리로 걸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용해 뒷모습으로 성적 신호를 보낸다. 둥그스름하게 솟아오른 엉덩이가 수컷을 유혹하는 중요한 자극제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인간은 두 다리에만 의지해 걸기 때문에 앞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여자는 직립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면할 때 대부분 앞모습만을 보여지게 되므로 굳이 뒤돌아 엉덩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가슴을 통해 성적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²⁾.

이렇듯 가슴은 남매간의 성 차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표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또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나타난다. 가슴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아기들은 가슴에서 모성을 느끼고, 남성들은 에로티시즘을 느끼며, 의사들은 유방암과 같은 병을 보고, 사업가들은 가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다. 역사에서는 이런 의미들 가운데서 그 특징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해왔다. 이런 의미의 다양성은 인간의 사고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잘 말해준다.

2. 미술작품에 표현된 가슴노출

여성의 몸을 특징짓는 가슴은 역사의 기록이 시작된 이래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함축적

1) Marilyn Yalom, *A History of the Breast* (N.Y.: Ballantine Books, 1997), p. 9.

2) Desmond Morris, *벌거벗은 여자*, 이경석, 서지원 역 (서울: Human & Books, 2004), p. 263.

인 의미로 약호화 되었다. 과거에 여성 우상들이 숭배되었을 때나 이탈리아 화가들이 그린 어머니로서의 이미지인 젖을 먹이는 성모마리아의 그림에서 가슴을 드러낸 여성상이 묘사되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상징할 때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여성의 가슴을 드러내어 강한 여성상을 표현했다. 반대로 유희의 미끼로써 정숙하지 못한 가슴을 가진 것으로 음탕하게 묘사되기도 했다. 특히 여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는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라고 전해진다. 르누아르는 "만일 여자에게 유방과 엉덩이가 없다면 여자의 몸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여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가슴과 엉덩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³⁾.

마리 앙투와네트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두 개의 도자기 잔을 한 쌍의 완벽한 유방 모양으로 <그림 1>과 같이 만들게 했다. 마리 앙투와네트의 가슴을 본 따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반구형의 도자기 잔은 젖꼭지가 아래를 향한 유방 모양이다. 이 유방을 세 마리의 숫산양 머리가 떠받들고 있는데, 숫산양은 남성의 심벌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성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열, 의지, 신앙을 표현할 때도 가슴의 노출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젖가슴을 강조하였다. <그림 2>는 들라크루가 혁명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그린 명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며 앞장 선 여인의 가슴을 노출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화살 당한 시체와 필력이 있는 것



<그림 1> 마리 앙투와네트를 위한 도자기, 18C.
Marilyn Yalom, *A History of the Breast* (N.Y.: Ballantine Books, 1997), p.113.

발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슴을 드러낸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유희 폭동을 주제로 한 것으로 종종 자유의 이념과 동일 시 되기도 하였다. 이 자유의 여신을 상징하는 여인은 성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감정을 고취하기 위해 일부러 가슴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드러낸 가슴은 혁명 자체처럼 긴급하면서도 공격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3. 복식에 나타난 가슴노출

역사를 통해 볼 때 여성의 가슴은 패션의 포인트가 되어 노출되거나 감춰지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기원전 2500년경 크레타 섬의 미노아 여인들은 가슴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었다. 한편 그리스, 로마의 여성들은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 조금이라도 작게 보이려 하였다. 18세기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르고 가슴의 절반 정도를 꼭 맞게 감싸며, 가슴을 위로 밀어 올렸다. 19세기 파리에서는 고래수염으로 만든 코르셋에 가슴을 풍만하게 하기 위해 울페드를 넣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1920년대와 1960년대는 남녀평등,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으며 소년 스타일



<그림 2> Eugene Delacroix, 1830. Marilyn Yalom, *A History of the Breast* (N.Y.: Ballantine Books, 1997), p.122.

3) 문국진, *밖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 (서울: 예담, 2004), p. 37.

의 납작한 가슴과 H라인이 지배적이었으므로 가슴이 패션의 포인트가 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는 내추럴하고 루즈한 스타일이 유행되어 역시, 가슴은 패션의 주역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는 크리스찬 디올의 엘레강스한 여자다운과 마릴린 먼로의 섹스 어필이 유행한 시기로 풍만한 가슴이 여성들의 희망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장 폴 고티에, 돌체 앤 가바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여러 디자이너들이 가슴을 과장시킨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마돈나가 브레지어와 코르셋 차림의 무대의상으로 나타나자 가슴에 새로운 시선이 향해졌다. 또한 1989년 봄여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 이브 생 로랑이 한 쪽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킨 패션을 발표하면서 가슴이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다.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까지 가슴을 노출시킨 대담한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현대에는 마네킹의 체형이 바뀔 정도로 가슴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가슴을 감추거나 반대로 가슴의 반구형을 노출하는 것은 상반되지만 가슴에 시선을 모으기는 마찬가지이다. 유행의 역사상 옷은 이 둘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디자인해 왔다. 한 시대에는 가슴의 골짜기를 드러내었는가 하면, 다른 시대에는 목까지 상반신을 완전히 덮어 버렸지만, 가슴의 윤곽만은 파괴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가슴신호를 전달하고자 했고 단단하게 솟아오른 반구형 가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⁴⁾.

Ⅲ.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가슴 노출 디자인의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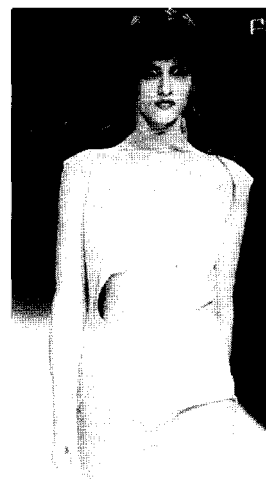
그 동안 숨겨져 왔으므로 여성의 신체 중 가장 예로たく하게 느껴졌던 가슴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노출된 가슴을 디자인 형태별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얇고 비치거나 투명한 천으로 살짝 가리거나 가슴을 엿보이게 하는 암시형, 가슴을 살짝 가려 유두는 가리고 있으나 가슴이 거의 드러나고 볼륨감을 더욱 강조하는 과장형으로 나눌 수 있

다. 가슴의 유두를 중심으로 유두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개방형으로 보았고, 가슴을 완전히 가리고 있으나 가슴의 윤곽선을 살려서 바디스(bodice) 형태로 가슴모양을 오브제로 표현한 것은 재현형에 포함하였다.

1. 암시형

암시형은 가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살짝 가리거나 비치게 하여 가슴을 연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슴을 암시하는 듯 가리면서 노출하는 것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비밀스러운 요소가 가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인체를 직접 보는 듯한 암시의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은밀함을 유지시켜 더욱더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숨기면서도 노출된 듯한, 즉 그 밑에 가슴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옷들은 전통적으로 선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지된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흔히 슬릿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3>은 워퍼스드레스의 커다란 슬릿 사이로 가슴의 일부분이 엿보이는 디자인이다. 가슴을 가리고는 있으나 슬릿이 가슴 부분을 지나감으로써 가슴이 보일 듯 말듯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성의 복식은 남



<그림 3> Tristan Webber, 2000. *Moda in N.116* p.161.

4)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2), p. 186.

성의 복식보다 일반적으로 정숙하면서도 동시에 노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며, 여성은 그동안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복식에 성적인 과시를 부여하여 에로틱하게 보이려 하는 것이다⁵⁾.

비치는 블라우스 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 유두가 가시화 된 것들은 가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때로 누드보다 더 관능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중 하나로 <그림 4>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의의 전체를 핑크색의 비치는 소재로 사용하고 가슴부분만 동그랗게 가려 가슴이 밖으로 어렴풋이 드러나 보인다. 가슴이 살짝 비치는 유머 있는 디자인으로 노출에 흥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것은 가슴을 감추어진 듯 드러내어 암시함으로써 직접 노출시키거나 과장시킨 것보다도 오히려 여성 인체에 대한 신비감을 불러 일으키고 여성성이 소극적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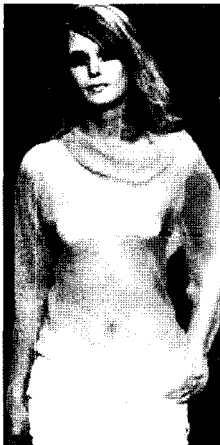
2. 과장형

과장형은 가슴을 숨기지 않고 풍만함을 강조하며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돌출된 가슴은 성적인 유희와 함께 여성의 힘 과시라는 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심벌 중의 하

나이다. 따라서 가슴의 형태가 강조되면 될수록 그 효과는 커지며 남성들에게는 더욱 유희적이다. 신체 를 인위적으로 강조하여 과장시킴으로써 자극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림 5>에서 보이는 디자인은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모아 위로 끌어올려 가슴의 윗부분이 거의 드러났으며 유두까지 살짝 보일 정도다. 실제로 가슴의 형태보다 크게 과장된 가슴은 마치 공과 같이 보이며 터질 듯 매우 도발적으로 보인다.

현대 패션은 신체의 조형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상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⁶⁾. 그러나 신체의 적절한 이용과 표현에 따라 디자인의 전달이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한 가지는 체형을 어떻게 표현 해 내는 가인데, 적절한 은폐와 과장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의 볼륨감을 강조하는 형태는 여성적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그림 6>은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디자인으로 상체를 코르셋 효과와 같이 압박 하여 가슴의 윗부분을 드러내고 크기가 커 보이도록 과장시켰다. 이것은 가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복고적이고 로맨틱한 디자인으로 에로티시즘과 인체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 4> Roland Mouret, 2001.
Collezioni edge N. 118, p.132.



<그림 5> Roberto Cavalli, 2003.
Fashion Show, p.113.



<그림 6> Vivienne Westwood, 1991.
Gene Krell(1997), Vivienne Westwood, Universe, p. 45.

5) J. C. Flugel,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1967), p. 107.

6)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Infra-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1993), p. 48.

과정형에서는 가슴을 크게 만들려 하며 이 과정에서 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진다. 가슴을 정숙한 듯 은폐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인체의 속박과 노출, 관능화를 조래하여 여성성이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방형

개방형은 은근히 혹은 우연히 가슴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완전히 밖으로 드러낸 것을 말한다. 196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브래지어 소각 시위를 하며 가슴은 성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슴을 그대로 드러냈다⁷⁾. 이러한 시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온 것에 대한 반동이며, 쿨셋과 함께 여성을 속박해 온 올가미로서 브래지어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여성스러움에는 성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 표현이 복잡하며 여성 신체에 대한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노브라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거부와 관계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성의 표현이기도 하다⁸⁾.

오늘날 여성들의 가슴은 그것의 의미와 이용 방법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가슴의 의미와는 다를 것이다. 1989년에 이브 생 로랑이 한쪽 가슴을 드러낸 <그림 7>과 같은 디자인을 발표하여 당시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드러난 가슴은 관능적으로 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속박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유로움과 여성신과 같은 당당함이 보인다. 그 이후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는 디자인들이 종종 선보이게 되었다.

가슴을 완전히 드러낼 때는 유두에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림 8>은 감옷을 연상시키는 탑을 아주 짧게 입어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았다. 마치 가슴을 가리는 양 유두만을 색칠해 놓아 도발적인 느낌과 풍자와 함께 여성의 억압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개방형에서는 노출의 극대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자유방임시대의 성 개방을 의미한다. 과시적이거나 퇴폐지 저속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인체



<그림 7> Yves Saint Laurent, 1989. *BAZAAR* N.8, p.374.



<그림 8> Plein Sud, 2002. *Official Korea*, 2002. 1. p. 223.

의 조형미나 에로티시즘과 함께 자의식적인 여성에게 부여된 자유를 의미하며 여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당당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성의 가슴은 따뜻한 여성미를 발산하며, 또한 갓난아기를 먹여 살리는 고유의 역할을 암시한다.

7) Clyde Fransworth, "Shirts on, shirts off: Canadian feminists protest an indencency law," *New York Times*, 6 Sep. 1992,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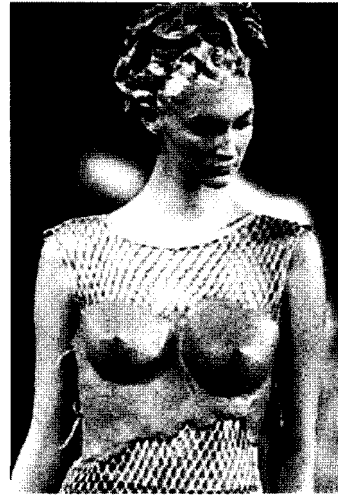
8) 이의정, 양숙화, *패티시즘* (서울: 경춘사, 1998), p. 178.

4. 재현형

재현형은 가슴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나 오브제를 이용하여 마치 여성의 벗은 몸을 보는 듯이 신체를 위장하는 디자인들로 대부분 바디스(bodice) 형태로 표현되었다. 바디스는 여러 조형 요소로 구성되는 창조적 형태이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입체조형물이다.

이상적 신체에 대한 갈망은 수술이나 브래지어 또는 코르셋으로 표현되나 <그림 9>와 같이 바디스라는 형태로 재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사에서 알렉산더 맥퀸이 디자인한 것으로 가슴의 윤곽선의 풍만함을 살려 바디 형태로 성형한 듯한 것이다. 의상과 몸이 일체되어 보이는 마치 여성의 몸을 재현한 듯한 미래적이며 조형적인 디자인이다. 조형적 형태의 바디스는 신체와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위장하며 또한 신체의 일부를 부각시키고 단점을 가려 주기도 하고 이상적인 체형을 보여줄 수도 있다. 외의로서 입혀진 바디스는 은폐 대 노출의 형식적인 디자인 특성을 이용한 에로틱한 성적 매력의 예이다⁹⁾.

한편으로 <그림 10>과 같이 바디스를 언발란스한 가슴모양 그대로 유두까지 표현한 장폴 폴티에의 디자인은 여성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 듯한 효과와 함께 풍부한 모유를 품고 있는 듯 보성적인 면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 바디스를 이용하여 가슴을 과



<그림 10> Jean Poul Gaultier, 1999. *Moda in N.110* p. 172.

장시키거나 부각시켜 자신의 신체를 위장하여 재현하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위적인 왜곡과 과장 등은 가슴의 상품화를 보여주며, 위장을 통한 여성의 신체미를 느낄 수도 있다. 또한 모유로서의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하기도 하며 여성의 새로운 억압과 자유를 동시에 보여준다.

가슴 노출 디자인의 유형들은 <표 1>과 같이 정리되었다.

IV. 가슴 노출 디자인의 의미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가슴 노출 디자인의 유형을 암시형,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여성성의 강조, 자유의 표현, 모성의 상징, 성의 상품화라는 가슴 노출 디자인의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1. 여성성의 강조






생물학적인 외관상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몸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슴은 여성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다. 가슴은 남성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슴



<그림 9> Givenchy, 1999. *Moda In, N.112*, p.86.

9)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88.

<표 1> 가슴 노출 디자인의 유형분석

디자인의 유형	사 진	특 징	디자인의 의미	노출의 의미	
암시형		가슴의 일부 노출 비치거나 엿보이는 형태	신비한 여성미 소극적 여성성 로맨틱한 에로티시즘		여성성의 강조 자유의 표현 모성의 상징 성의 상품화
과장형		가슴의 풍만함 강조 과시적 형태 압박과 과장	도발적 여성성 인위적 강조 가슴의 상업화 퇴폐적 관능미		
개방형		노출의 극대 성의 직접 표현 당당함을 과시	적극적 여성성 자유와 권위 주장 성의 개방 따듯한 여성미		
재현형		오브제 이용 건조한 소재 인체의 왜곡	위장된 여성미 여성의 권위 강조 이상적 신체 표현 신성한 모성을 자극		

노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슴 노출 디자인의 유형에서 차이는 있으나 암시형,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 모두에서 여성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암시형에서는 자연스럽고 은근한 여성성이 특징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도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여성성은 과장형에서 표현되었다. 과장형에서는 인체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과장하는 등의 기교를 사용하여 남성과는 다른 성적 차별화를 피하고 있다. 여성적인 신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에로틱한 관능적인 스타일로 여성의 특성을 감추기보다는 강조한다.

개방형과 같은 유형에서 완전히 드러난 가슴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여성의 관능미가 가장 잘 표출될 것 같으나 오히려 신비감이 사라지고 성적 호기심이 감소되었다.

재현형에서 보이듯이 오브제를 이용한 노출은 실제 노출된 가슴보다도 더욱 완벽한 몸처럼 위장하여 여성성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여성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들과 보편적으로 여성이 갖는 경험을 말한다. 남성적 성은 명확하게 규정된 표현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여성적 성은 이미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법

10) Tickner, "The body politic: Female sexuality and women artists since 1970," *Art History* (1978), p. 238.

이 결여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페미니즘적인 사고 등에 의해 여성의 신체도 숨기지 않고 남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축소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¹¹⁾.

가슴은 그동안 여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코드로 성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드러내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적당한 노출로 가슴에 시선을 집중시켜 여성의 미를 과시하는 것이다.

2. 자유의 표현

가슴은 성을 상징하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속박되었던 가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여성의 자유의 표현이며 권위의 하나의 상징이다. 이러한 의미가 개방형과 재현형에서 표현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별거벗은 남자는 영웅주의, 신성, 운동지상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럽고 비도덕적인 것이었다. 여성에게 있어 신체 부위의 노출은 비정숙하다고 인식되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신체 노출이 허용된다. 게다가 가슴을 보이는 것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이나 재현형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슴의 노출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개방형에서 보이는 것은 여성들이 당연시 해왔던 속옷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방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당당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현형에서의 노출된 가슴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한 채 오브제를 이용해서 몸을 드러내며 또 다른 자유를 주장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슴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 숨기는 것이 40년대와 50년대의 규범이었다면, 60년대 말의 가슴은 이제는 압박할 필요 없다는 가슴에 대한 해방을 의미했으며 그 이후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오늘날 여성미술 및 에로틱 미술에서 가

장 중요한 영역은 여성의 육체를 탈 외설화(de-erotizing)하고 탈 식민지화(de-colonizing)하는 것이며, 여성 육체의 금기에 도전하는 것이다¹²⁾.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차별적 위치에 대한 정치적 의식을 지니게 되어 신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성 억압과의 투쟁을 표현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권위와 이념들을 주장하기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들이 가슴을 일종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이며, 우연히 노출된 가슴과는 대조적으로 당당히 드러낸 가슴은 성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감정을 고취시킨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당당한 가슴을 드러내는 것만큼 더 이상 자유를 상징하기에 좋은 것은 없으며,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를 조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¹⁴⁾.

3. 모성의 상징

여자 가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수유이므로 가슴의 자연스러운 노출은 모성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보인다. 유형 분석의 개방형과 재현형에서 몇 가지 의미 중 하나로 모성의 상징이 유추되었다.

개방형에서의 숨기지 않고 드러난 가슴은 성적인 의미와 함께 과거 우리의 어머니나 원사 부족과 같이 모성적 의미를 느끼게 한다. 대부분 고대의 여신들은 수태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체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시대 이전에 숭앙을 받았던 것은 젖을 만들어 내는 가슴을 가진 성숙한 여성상이었다. 젖이 잘 나오도록 두 손가락으로 유방을 누르며 팔에 안긴 아기에겐 온화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모습은 신성함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재현형에서 표현된 풍만하게 드러난 가슴은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호기심에서 벗어나 모유를 생산할 것만 같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래 여성의 가슴을 지나치게 성욕의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면서 어머니의 가슴은 성적인 의미에 가려 희미해지기도 했다. 시각 예술과 문학에서 가슴은 남성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

11) Hester Eisenstein, "Introduction," *The Future of Difference* (NJ: NewBrunswick, 1985), pp. xvi-xviii.

12) Tickner, *Op. cit.*, p. 239.

13) Rozsika Parker and Griselda Pollock, *여성·미술·이데올로기*, 이영철, 목전권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p. 204.

14) Marilyn Yalom, *Op. cit.*, p. 243.

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슴의 중요한 의미와 성욕의 대상이 된 가슴과의 사이에서의 논쟁이 계속되어온 것이다. 여성을 의미하는 다양한 상투형들은 바람직한 존재인 처녀와 어머니의 이미지, 억압하여 교화시켜야 하는 존재인 매춘부와 마녀로 상징화되어 왔다. 처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규범적으로, 매춘부와 마녀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금지적인 역할을 해왔다¹⁵⁾.

아직도 가슴이 지나치게 많은 문화적 성격인 기대를 받고 있고, 다른 부분들보다 더 많은 통속적인 매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슴이 개방형과 재현형에서는 숨기지 않고 자연스레 드러냄으로써 보일 듯 말 듯한 에로티즘보다는 신성한 모성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성의 상품화

여성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것은 성의 개방화와 함께 많은 상업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슴노출 디자인의 유형분석 중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에서 성의 상품화라는 의미가 유추되었다.

신체가 주목되면서 더욱더 가슴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업화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성의 가슴을 위한 제품의 발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여 예술작품과 매스 미디어 및 오락에서 나타나는 가슴의 노출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가슴은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에 의해 성적인 상업화의 대상으로 이용되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 중 특히 가슴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많이 선보이게 되었다¹⁶⁾. 강박적으로 가슴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슴이 거의 무한한 상업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슴은 브래지어와 관련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제품에 그려 넣어도 그 상품의 판매 역시 촉진시킨다. 여성들의 가슴은 상업적인 면에서 구매자이자 동시에 판매자이다. 가슴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업, 즉 브래지어와 코르

셋, 바르는 제품과 운동, 외과적인 확대와 축소 시술은 큰 규모의 국제적인 산업을 이루고 있다¹⁷⁾.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에서 여성들은 가슴을 크게 보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며 여성이라는 성을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은 존재의 불확실성 속에 실존의 확실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에 불두하게 된다. 이제 신체는 옷을 입는 사람이 운동과 다이어트나 신체의 신행, 압박과 같은 육체적 노력을 통해 가꾸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신체는 자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천이 아니라 자기를 변형시키려는 개인의 욕망에 따라 변형되고 있다¹⁸⁾. 여성의 성 특히 가슴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가슴이 노출된 디자인은 암시형,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암시형은 비치는 천을 이용하여 가슴이 살짝 비치거나 슬릿 등으로 보일 듯 말 듯 노출된 디자인들로 표현되었다. 직접 보이는 것보다도 가슴의 노출을 연상시킴으로 해서 더욱 유혹적이다. 둘째, 과장형은 브래지어나 코르셋 등으로 상의를 압박하여 가슴이 위로 드러나게 하여 가슴의 볼륨감을 키 보이게 하였다. 유두만 가리고 있을 뿐 가슴의 내부분이 노출되며 과장된 가슴으로 인해 더욱 도발적이다. 셋째, 개방형은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디자인으로 여성의 인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하였다. 넷째, 재현형은 오브제를 이용하여 가슴의 노출을 위장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디스 형태로 표현되었다. 노출에 대한 수치심과 이상적 신체에 대한 갈등을 나체와 같은 효과로 나타내었다.

가슴 노출 디자인으로 표현된 디자인의 의미는 크게 여성성의 강조, 자유의 표현, 모성의 상징, 성의 상품화라는 디자인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었다. 여성성의 강조는 전체 유형에서 보여졌으며 가장 빈도

15) Thalia Gouma-Peterson and Patricia Mathews, *패미니즘 미술의 이해*, 이수경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4), p. 56.
 16) 김소영,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15.
 17) Marilyn Yalom, *Op. cit.*, p. 159.
 18) Nicholas Mirzoeff, *바디스케이프*, 이윤희, 이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9), p. 56.

가 높았다. 가슴은 숨겨져 있었으므로 여성의 특징이 더욱 크고 또한 가슴의 이미지가 이미 여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표현은 개방형과 재현형에서 주로 유추되었으며, 가슴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 대한 저항과 여성권위에 대한 표현의 의미로 전달되었다. 모성의 상징은 개방형과 재현형에서 보이는 것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낸 가슴은 과거 모유를 주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며, 과장없이 드러난 가슴은 성적인 의미는 감소되었다. 성의 상품화는 과장형, 개방형, 재현형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거나 과장시켜 표현할 때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가슴을 이용한 광고나 브래지어, 성형, 포르노그래피 등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

그동안 패션 디자인에서 몸에 관련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가슴과 같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표징인 가슴이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슴이라는 특성상 노출하는 디자인이 많았다. 따라서 가슴에 관한 연구만으로도 패션디자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슴뿐만이 아니라 여성성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인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슴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인식을 갖는다면 향후 연구와 디자인 전개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소영 (200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국진 (2004).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 서울: 예담.
 박현신 (2003). "20세기 후기 패션의 신체부재와 탈재현 현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희선 (2002).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이의정, 양숙희 (1998). *패티시즘*. 서울: 경춘사.
 허정선(2004).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avis, Fred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

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isenstein, Hester (1985). "Introduction." *The Future of Difference*. NJ: NewBrunswick.
 Flugel, J. C. (1967).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 Press.
 Fransworth, Clyde (6 Sep. 1992). "Shirts On, Shirts Off: Canadian Feminists Protest an Indecency Law." *New York Times*.
 Gaut, Berys and Lopes, Dominic McIver (2001). *The Routledge Companion To Aesthetics*. N.Y.: Routledge.
 Krell, Gene (1997). *Vivienne Westwood*. Universe.
 Lehnert, Gertrud (2000). *A History of Fashion*. Germany: Konemann.
 Martin, Richard and Harold Koda (1993). *Infra-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Mirzoeff, Nicholas (1999). *바디스케이프*, 이윤희 · 이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Mitchell, W. J. T. (1986). *Icon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rris, Desmond (2004). *벌거벗은 여자*. 이경식, 서지원 역. 서울: Human & Books.
 Parker, Rozsika and Griselda Pollock (1995). *여성 · 미술 · 이해*. 이영철 · 목천균 역. 서울: 시각과 언어.
 Peterson, Thalia G. and Patricia Mathews (1994). *패미니즘 미술의 이해*, 이수경 역. 서울: 시각과 언어.
 Roach, Mary E. and Joanne B. Eicher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Tickner (1978). "The Body Politic:Female Sexuality and Women Artists Since 1970." *Art History*.
 Yalom, Marilyn (1997). *A History of the Breast*. N.Y.: Ballantine Books.
 BAZAAR, N. 8, 1989.
 Collezioni Edge, N. 118, 2001.
 Fashion Show, 2003.
 Moda In, N. 110, 1999.
 Moda In, N. 112, 1999.
 Moda In, N. 116, 2000.
 Official Korea, 2002.1.